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더더욱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라 하니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생각납니다. 돌이켜보면 그분은 저에게 단순한 신자 할머니 이상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면 그렇게 편하고 정겨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 미사에 오실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씩 제 손에 쥐어주곤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상추, 고추 등등 손수 기른 채소들이 한 봉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매요, 제발 좀 그만 가져오세요. 제가 맨날 상추하고 고추만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막무가내셨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또 한 봉지 싸 들고 오셨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신부님 몸보신해야 한다.”면서 소고기 한 근씩 끊어다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본당 신부 노릇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하셨지만 마음만은 참으로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래도 두 발로 걸어 성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무척이나 행복해했던 분이셨습니다.

---

어느 주일날, 그 할머니가 성당 입구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여쭙습니다. “할매요, 집에 안 가세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빛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요, 이제 진짜로 기운이 없어서 성당에 못 올 시더.” “할매요, 걱정 말고 이제 성당 나오지 마세요. 제가 찾아갈텐데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떠나시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사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어느 신자분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다음 달부터 봉성체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그렇게 가신 것이었습니다. “걱정 말고 이제 성당 나오지 마세요.”라고 드렸던 마지막 말이 하루 종일 마음을 콧속 찢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미사 때 제대 앞에 조용히 누워 계신 할머니께 들려드린 복음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태 11,26) 하느님 아버지께서 할머니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최고의 선한 뜻을 이렇게 이루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잠자다가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달라.”는 작은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주일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를 모시고, 그냥 주무시는 듯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멀리 서울에서 어머니의 선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신비로운 과정의 끝에 제 입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이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살아오신 할머니의 마지막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느님, 할머니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하느님 그분께 그저 감사 또 감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마태 11,26)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 특별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닮아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들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결국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망동 본당 우병현 마태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당신의 평화와 안식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정신과 영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안식과 평온함을 선물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끄시는 주님을 따르며 기쁜 마음으로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435번 ‘어린이처럼’

### 본기도

†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즈카르야 예언서 9장 9절-10절

**안 내** :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묵 상** : 하느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오시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알아 뵙기 위해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짓의 옷을 벗고 겸손한 모습으로 깨어있어야겠습니다.

**화 답 송**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서 8장 9절. 11-13절

**안 내** :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묵 상** :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1장 25절-30절

**강 론** :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1-2쪽)

---

예물준비성가 : 332번 '봉헌'

영성체성가 : 165번 '주의 잔치'

###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름답고 흔들리지도 않을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풀꽃과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매일을 살았을 그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계획안에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느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처신들은  
나날이 겸손함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짐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그분을 증거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느님을 바라보며 겸손함의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 공지사항

파견성가 : 34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 ※ 공소사목 성금

박광호님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8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문경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7월 9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문경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 교구청사 봉헌 1주년 기념

####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찬양음악회

- 일시 : 7월 9일(주일) 16:30 - 18:0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 예비신학생 캠프

- 일시 : 7월 15일(토) - 16일(주일)
- 장소 : 한성연수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모자, 물놀이 준비, 상·하의 긴 옷 반드시 필요

### ■ 제22회 농민주일 기념 행사

- 일시 : 7월 16일(주일) 10:00 - 16:00
- 장소 : 풍양농촌선교본당
- 준비물 : 미사준비, 모자

### ■ 건강한 가족 만들기(Family wellness)

- 일시 : 7월 15일(토) 14:00 - 17:00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소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 관구 4층(송현동)
- 참가비 : 1인 5만원

### ■ 제16회 초록빛 교실

####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참가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문의 :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신청 : 7월 14일(금)까지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 2018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안내

- 개교 103주년,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대학, 의예과/간호학과 포함 의료보건 특성화대학
- 수시 2,597명/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61명 모집
- 원서접수 : 9월 11일(월)-15일(금)
- 입학상담 : 053-850-2580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7월 15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 향심기도 소개피정

- 일시 : 7월 15일(토) - 16일(주일)
- 대상 :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 장소 :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집
- 문의 : 010-5332-7587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 4장 혼인의 사랑

#### 폭력과 악용

155.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부부는 “탐욕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더 깊은 결합을 요청받을 때에, 그들이 서로 다르며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을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하고 빼앗길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소중한 상호 소속이 일종의 지배로 변하면, “인간관계에서 친교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배의 논리에서, 심지어 지배하는 이조차도 결국 자신의 존엄을 부인하고, 결국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체를 주관적으로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몸의 모든 의미가 박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을 일종의 탈출구로 이용하고 부부 결합의 아름다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156. 모든 형태의 성적 굴종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오로가 에페소서에서 “아내는 ……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에페 5.22)라고 한 말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을 피하여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 시대의 문화적 범주를 반영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화의 틀에 갇혀있어서는 안 되고, 그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본뜻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내를 남편의 종이나 노예가 되도록 하는 모든 굴종의 형태를 배척합니다. …… 혼인

---

으로 이룩해야 하는 공동체나 일치는 상호 증여를 통하여, 곧 서로 순종하는 가운데 실현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에페 5.28).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모든 이가 안일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서로 순종하십시오”(에페 5.21).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신의와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호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우정을 위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157. 그러나 성과 성애에 대한 왜곡을 거부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거부가 경멸이나 무시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들이 저마다 모든 개인적 요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만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저 관대하며 희생적인 자기 증여를 혼인의 이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또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함과 부족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진실하고 기쁜 감사의 마음으로 애무, 포옹, 입맞춤, 성적 결합을 통한 사랑의 육체적 표현의 수용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순전히 영적인 존재가 되기만을 갈망하고 육체를 단지 인간의 동물적 본성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 거부하려 한다면, 영혼과 육체 모두 그 존엄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내려오는 사랑, 주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줄 수만은 없으며, 받기도 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선물로 받기도 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인간의 평정심은 깨지기 쉬우며 결코 인간답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늘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이 다시 분출하여 가장 원초적이며 이기적인 기질을 새롭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꽃보다 정성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성당일은 하면 할수록 제대로 몰랐던 게 훨씬 많은 것 같다. 나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동안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한심스러울 때가 많다. 새롭게 성당 일을 맡게 되면서 자주 하고 있는 자책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더니 요즘의 내가 그렇다.

몇 달 전의 일이다. 수녀님이 부활 대축일에 사용할 꽃을 구입하는데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기사 겸 짐꾼으로 따라나섰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꽃 백화점에는 꽃 천지였다. 꽃만큼이나 가게수도 많았고 원산지인 나라이름도 다양했다. 꽃 시장이 그토록 세계화되어 있는 줄 처음 알았고 꽃값이 왜 비싼지도 알게 되었다.

꽃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수녀님들을 본 것도 놀라웠다. 다들 진지한 표정으로 예쁘고 싱싱한 꽃을 고르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꽃을 고르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얘기에 무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궁금했는데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보고 또 보고, 고르고 또 고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동안 시간은 빨리도 흘렀다. 만약 내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몇 시간이고 더 지체할 것 같았다. 동행한 내가 신경 쓰였는지 수녀님은 어디 앉아서 편하게 기다리라고 했지만 앉아있을 분위기가 아니었다. 뒤따라 다니며 묶어놓은 꽃 더미를 몇 차례 차로 옮겨야 했다.

알고 보니 부활대축일에 하는 꽃꽂이에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다. 그저 꽃만 꽃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밑그림을 그리고, 꽃을 정하고, 꽃을 사고, 꽃을 꽂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힘든 과정이었다. 책임을 진 수도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연례행사처럼 무심코 보고 지나쳐온 제대 꽃에 이런 노력과 희생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그것은 꽃이라기보다 지극한 정성이었다. 밤늦게까지 제대의 불을 밝히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수녀님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부활 꽃이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이런 정성이 더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수녀님들이 왜 그렇게 공을 들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수도자로서 부활하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찬미와 흠숭 중의 하나가 제대에 올리는 꽃이 아닐까? 마치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워계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바친 황금과 유향, 몰약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일이 만만해 보인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 수준이면 보는 입장에서는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막상 내가 하려면 모든 것이 어렵다. 그때쯤이면 깨닫게 된다. 호수에 평화롭게 떠있는 백조들이 실제로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두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쉬워 보이는 것일수록 그 뒤에 숨어있는 노력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함부로 남이 한 것을 평가하고 비판할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다. 아름다운 결과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온전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 그런데도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알팍한 지식으로 아는 체나 했으니...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수도자들을 보며 겸손의 덕을 배운다.